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송영길 의원

“호남이 지지하면 경선 1차에서 끝나”

오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호남권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될 것인가는 최대 이슈다. 광주 일보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권 경선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20일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문 전 대표의 진정성을 호남 민심이 점차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아직 유보적 분위기도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

- 문 전 대표의 호남 진정성을 말한다면.

▲ 호남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호남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정권교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진솔하게 느낀 것 같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호남민심 예전보다 좋아져

文 진정성 받아주고 있어

반문연대는 제2의 3당 야합

한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신이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 개헌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인데.

▲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찬성할 것이고 바른정당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경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 1차에서 끝날 것이다.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호남권 경선에서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본다. 결선투표까지 가면 내부 상처가 커지면서 본선에 도움이 안 된다.

-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데 지적도 있다.

▲ 나를 준비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 21일 ‘더문캠’ 주관으로 해당 공약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미진한 부분을 최대한 구체화 시키겠다. 또 당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

- 문 후보는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선 이후에 연립정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립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연대 및 연립정부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 대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나선다면 국회 인준 등 총리 및 내각 구성에 있어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 진통이 있겠지만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에 민주당 정부와 같이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구여권 세력과 연합해서 야당이라고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 국민의당은 ‘반문 연대’를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이 국민의당 후보 깃발 아래 단일화 해주지 않을 것이다. 반문 연대로 단일화를 한다면

완전히 제2의 ‘3당 야합’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적폐세력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호남 민심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 문 전 대표는 호남과 영남의 지지를 동시에 얻어내는 ‘통합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

▲ 진정한 지역구도 극복이 이번 대선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야합으로 붕괴됐던 개혁·진보 진영이 통합을 이루면서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는 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 호남 출신의 유력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에 대한 상실감도 크다.

▲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지지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이 정권 창출을 주도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호남 정치인들도 과감한 도전과 응전으로 커가야 한다.

- 호남 정치권의 미래에 대한 입장은.

▲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호남 정치권에도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박지원·박주선·전정배 의원 등 선배 정치인들이 그간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친박에 빚되어 친문 패권세력이라는 비판이 있다.

▲ 친박의 경우, 정치적 이권으로 문전 집단이다. 반면, 친문은 강력한 가치 지향점이 있다. 적폐청산과 공정을 기치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일부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청산되리라고 본다.

- 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논란이

호남·영남 ‘통합대통령’ 될 것

대선 이후 연립정부 불가피

호남 정치권 새 리더십 필요

커지고 있다.

▲ 국정농단 세력이 안보관을 하도 문제 삼기에 한 말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란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그가 여단장으로 있었을 때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전두환 군부 세력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전두환의 표창장은 의미 자체가 없다고 본다.

-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

▲ 호남이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줘야 한다. 호남 민심이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왔다. 차기 대통령이 과반 이하로 겨우 당선되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호남에서 문 전 대표를 확실하게 밀어줘 적폐청산과 개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호남의 발전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광주시, 유럽 최고 자동차 연구기관과 손잡다

英 호리바 마이라와 협약 ... 기술개발·TF팀 구성

연구분야까지 확대 ... 친환경자동차 육성 꾀걸음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표방한 광주시가 유럽 최고의 자동차 연구기관인 영국의 호리바 마이라와 손을 잡고 친환경자동차 산업육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중국 조이롱 자동차 투자 유치, 광주 생산 전기차의 판매, 전기 및 수소차 보급 등에 이어 연구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함께 20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영국 호리바 마이라(HORIBA MIRA)와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호리바 마이라의 제프 데이비스(Geoff Davis) 부사장 겸 최고전략책임자, 오일근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이 참석했다. 3자는 협약을 통

해 세계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기술정보 교류 및 기술개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E-mobility 등 전력기반 이동수단의 개발을 위한 기획 및 디자인 개발, 설계, 시험·인증, 기술·생산 지원에 적극 협력기로 했다.

특히 세계 자동차산업의 변화 환경에 공동 대응키 위해 ‘공동T/F팀’ 구성과 ‘국제 공동연구소’ 설립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관련 전시회,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상호 참여 및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호리바 마이라’는 영국 너니턴(Nuneaton)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5년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연구 기관으로 출발해, 1970년대 민영화

를 거쳐, 2015년 일본 계측기 제조기업인 호리바(HORIBA)와 합병했다.

호리바 마이라에는 제너러, 랜드로버, 애스턴마틴, 토요타 등 완성차와 보쉬, 할덱스 등 글로벌 부품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우상용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시는 호리바 마이라와는 조이롱자동차의 한국 진출 시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협력, 전기이륜차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광주지역 전기차 부품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생겨 기쁘다”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와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을 통해 지구별을 구하는 동행자라는 생각으로 좋은 모델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4당 ‘엘시티 특검’ 대선 후 추진 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돼도 적용은 21대 이후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 정치권이 잠정 합의했다. 특검 수사 시기는 대선 이후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 대비한 국회선진화

법(현행 국회법) 개정에도 4당 원내지도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2020년 예정) 이후로 합의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주승용 원내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사실 상 합의됐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을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나 국회의장의 직권장정 조건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추가 논의 대상이다.

이 밖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다만 조기 대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4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7일 다시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출마 공식 선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이계윤씨 선임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인 이재오 공동대표는 20일 “분권형 개헌 등 5대 대개혁과제를 취임 후 1년 안에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에서 최병국 공동대표 등 당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4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구 시대의 틀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도 4년 임기 중 2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이계윤(65) 전 전남대학교수가 선임됐다.

광주시는 지난 2월20일부터 3월6일까지 공모한 결과, 응시자 12명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이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전남대 체육교육학과 교수로 전남대 평생교육원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시스기협회장과 장애인재활협회장을 거쳐 시체육회 스포츠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씨가 체육교육 전문가로, 광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왔으며, 특히 대학 평생교육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경영마인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